

아주경제

꽃조각가 데이비드 내쉬 "내 작업, 나무 향한 헌신이자 열정"

국제갤러리서 두번째 내한 개인전..참나무 코르크나무등 시간의 변화로 만든 작품 전시

박현주 기자 (hyun@ajunews.com) | 등록 : 2014-12-17 09:40 | 수정 : 2014-12-17 10:27



[21세기 현존하는 대표적인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가 영국에서 내한 국제갤러리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현주기자]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너도밤나무, 삼나무, 주목, 호랑가시나무.... 제가 재료로 사용하는 나무는 매우 다양하지요. 저는 이런 나무가 이끌어주는 대로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균열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휘었으면 그 변형대로 나무의 성격을 그쳐

따라갑니다."

영국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69)는 기후나 질병에 쓰러진 나무를 재료로 쓰는 조각가다.

나무를 오랜 시간 내부에서 건조했다가 그 특성을 살려 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작품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세기 현존하는 대표적인 조각가는 타이틀이 붙은 내쉬는 영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그의 작품 정사각형, 구, 피라미드는 2000 년 영국시민을 대표하는 첸트리 유산으로 소장되었으며 2004 년 예술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 4 등 훈장을 받은 '영국 국민작가'다.



[국제갤러리 데이비드 내쉬 개인전 전경]

16 일 영국에서 내한해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2 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데이비드 내쉬 자신의 작품의 재료와 종류 특성에 대해 하나하나 열심히 설명했다. 한국에선 2007 년 국제갤러리에서 전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나무 껍질을 벗기면 사람피부같은 속살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색에서 점점 황갈색으로 변하고 더 방치하면 회색으로 변한다며 그 변화를 담은 그림도 선보인다.

"나무마다 성격도 다르고 감정도 달라 가로로 잘 잘라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세로로 더 잘 쪼개지는 나무도 있다"는 그는 "작품활동 초기에는 가공된 나무를 재료로 사용했지만 '진짜 나무'를 알고 나니 인위적 형태 없이 있는 대로의 나무를 표현하게 됐다"고 한다.英

작가는 자신의 작품활동을 "나무를 향한 헌신이자 열정"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나무가 "생명에 대한 진리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오랜시간 나무와 함께 하며 나뭇결의 다양한 밀도와 나이테 등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며 '시간에 대한 감각'을 깨달은 그는 "나무의 수명주기는 인간의 수명주기를 닮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장하고 호흡하며 계절들을 지나며 깨어있거나 잠을 잔다"며 "나무들은 자신들의 형태를 통해 시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했다.

가공되지 않은 나무재료의 아름다움과,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전시다. 내년 1 월 25 일까지 이어진다. (02)735-8449



[데이비드 내쉬가 코르크 껍질을 벗기면 나오는 나무의 속살과 시간에 따라 변화는 색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현주기자]



[국제갤러리 데이비드 내쉬 개인전 전경]

박현주 기자 hyun@ajunews.com

URL: <http://www.ajunews.com/view/20141217090616720>